B-05 · TRACK B

계좌대여·명의도용·불법 미끼

내 이름과 접근매체를 빌려주지 않아요

자료	핵심요약
대상	중학생
학습시간	약 45분
활용	학습 전후 빠른 확인

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고·신청 전에는 연결된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와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.

PART 01 한눈에 보기

'잠깐만 계좌를 쓰자', '인증만 대신하자', '수수료를 주겠다'는 부탁은 내 명의와 접근매체를 범죄나 불법 거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부탁한 사람이 친구이거나 온라인 지인이어도 요구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오늘의 한 행동: '내 계좌·카드·비밀번호·인증번호·신분정보는 빌려주거나 대신 쓰게 하지 않는다'고 소리 내어 연습합니다.

PART 02 핵심개념

- 명의: 계좌·휴대전화·계정·계약에 적힌 책임 있는 사람의 이름
- 접근매체: 전자금융거래를 시작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
- 계좌대여: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쓰게 계좌정보나 접근수단을 넘기는 것
- 명의도용: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·정보를 써서 계정이나 계약을 만드는 것
- 불법 미끼: 돈·알바·대출·인증 보상을 내세워 위험한 행동을 시키는 제안

PART 03 안전한 판단 순서

1. 요구한 것이 계좌·카드·비밀번호·인증번호·신분정보인지 표시한다.
2. 대가·비밀·재촉·대신 송금·대신 인증을 위험 신호로 찾는다.
3. '내 계좌와 인증수단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'라고 거절하고 더 응답하지 않는다.
4. 메시지·계정명·시간 등 가능한 원본 기록을 보존한다. 안전을 해치면서 추가 접촉하지 않는다.
5. 보호자·교사 등 정한 어른에게 알리고, 실제 범죄·긴급 위험이면 경찰 112, 금융거래 이상이면 해당 금융회사 공식 사고신고·금융감독원 1332 등 상황에 맞는 공식 경로를 확인한다.

PART 04 문제 발생 시

이미 정보를 보냈거나 돈을 옮겼다면 추가 전달·송금·인증을 즉시 멈춥니다.

상대와 협상하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, 안전하게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합니다.

- 상대와 협상하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, 안전하게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합니다.
- 정한 어른에게 사실대로 알립니다. 금융거래 이상은 해당 금융회사 공식 사고신고와 금융감독원 1332, 범죄·협박·긴급 위험은 경찰 112에서 안내받습니다.
- 계좌의 법적 상태·책임·구제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.

마지막 확인

- 생활안전 연결: 명의·계약·권리·기록을 확인해 가상 제안에서 계좌·카드·비밀번호·인증번호·신분정보 요구를 찾아 거절하고, 기록 보존과 공식 도움 요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.
- 결론보다 먼저 확인한 정보와 판단 근거를 말합니다.
- 오늘의 한 행동: '내 계좌·카드·비밀번호·인증번호·신분정보는 빌려주거나 대신 쓰게 하지 않는다'고 소리 내어 연습합니다.